

시대의 천명과 우리의 사명

하박국 2:1-4, 요한일서 5:13-21

정윤돈 목사님

요약

서론 : 시대마다 천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1. 교회의사 큰 흐름 : 속사도 교부시대, 십자군 전쟁시대, 종교개혁시대, 부흥시대
2. 이 시대의 문제와 교회의 사명

(1) 이 시대의 문제 : 하나님 없는 지식과 철학, 교회에까지 파고든 자본주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취미와 육신의 즐거움

(2) 교회의 사명 : 복음회복, 말씀 회복, 사회 회복

결론 : 시대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 일꾼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주 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복음의 능력, 영적인 힘을 모두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천명과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잊고 살 때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참사랑교회의 중직자로 성도로 후대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24시간 기도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 나누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천명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서론 : 시대마다 있었던 천명을 받은 소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목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요일5:19의 말씀이다. 짧은 내용이지만 큰 답을 얻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역사에 모두 흐르는 내용이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나 참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전쟁, 계양, 어려움, 고통, 가난, 질병이 시대마다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소수에 의해서 그 시대가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는 순환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망한 숫자가 110만 명이었고, 9만 5천 명 정도는 포로가 되었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야 했다. AD 70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버틴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사다 요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고도 600m 쯤 되는 산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로마도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한 장수가 이것을 두고 고민했다. 그 주변이 사막이었다. ‘우리가 사막에서 포위하고 있으면 저들은 죽겠지?’ 그런데 3년 동안 포위했지만, 포위하는 로마 군대만 더 힘들어졌다. 한 장수가 이때 아이디어를 냈다. 마사다 요새 옆에 토산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어 있었다. 의논을 자기들이 한 것이다. “어차피 포로가 되면 남자들은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간다. 차라리 자결하자.” 그래서 10명을 뽑아서 전부를 죽이고, 2명을 뽑아서 8명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서로 죽이고 자결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필수적인 관광코스라 되어 있다. 복음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나라에 멸종의 위기가 오게 되었다. 이 마사다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도망친 몇 명의 꼬마 아이들이 있었다. 이 아이들이 증언을 했다고 한다. 성경과 기독교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과업과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역사와 성경을 목상할 때 무섭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라 소수를 사용하셨다. 내가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건조하는 천명을 받았다. 그 당시의 인구를 계산해 보았더니, 수십 억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그런데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다. 네피림이 되어 영적으로 오염되어 버렸다.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할 만큼 오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서서히 오염되어가고

있지 않나?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혹시 세상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2)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명은 이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잘 한 것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학교와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불신앙을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란다.

(3) 역사에 보면 많은 천명,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모세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해라.” 그대로 이야기했다. 출애굽을 지도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언약을 만들고 성막을 짓게 하셨으며, 여러 제도와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게 하셨다.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셨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모세는 가장 많은 사명, 천명을 부여받은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또 사사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5) 다윗,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천명을 주셨다.

(6) 바벨론 포로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성경을 정리하고, 메시야 신앙을 정립하라는 천명을 주셨다.

1. 교회사 흐름의 이해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사망한 후의 기독교 역사를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학교에서 2, 3년 동안 배워야 할 것을 30분 만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약간 머리가 아파도 이해를 하시고, 다시 들어보라. 램프들도 다시 역사를 공부하라.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 문이다.

(1) 초기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만났거나, 그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도바울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속사도 혹은 교부다. 이들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 교부시대라고 한다. 이분들이 했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면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그러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다.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속사도와 교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시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노력했다. 너무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었고, 10명이 넘는 황제들이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기 부인과 딸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까지 처형할 만큼 핍박을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교리적, 영적,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데다 외부적으로도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이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다.

(2) 십자군 원정 :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이단들을 영지주의라고 한다. 영이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육을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이 없었고 전부 영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전부 거짓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다 쇼가 된다.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이것이 영지주의다. 이들은 철학적이었고, 지식을 추구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많이 공부한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전부 신비주의로 흘러가 버린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제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다. 굉장한 엘리트들인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신비주의가 된다. 내가 아는 서울대 교수님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교수님이 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다. 과학자인데 기 운동에 심취했다는 것이다. 세상적인 지식이 높아지는 것과 영적인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결국 맞아진다는 소리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과 만나게 된다. 지식도 정지도 문화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영지주의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니까,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핍박은 없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더 살아야 할 텐데, 서서히 로마 가톨릭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571년에 교황이 세워지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예식과 규정을 정리하게 된다. 평생 수도원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행동을 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며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역사에서 가장 악한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 숭배를 받아들여 버렸다. 로마 가톨릭은 사위일체를 믿는 수준이다. 핍박을 받는 것도 문제였지만, 평화를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종교 통합적인 신앙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큰 대적이 된 것이다. 이 로마 가톨릭이 시작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다.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에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의 교황에게 원조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기독교가 형제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서로마 교황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러던 차에 동로마 황제가 도움을 요청하니, 교황 우르반 2세는, 이것이 동로마의 교회를 자신에게 복속시킬 기회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전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었다. 내심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귀중하게 생각했고, 믿음이 순수했다.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군인들만 온 게 아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부인,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것이다. 이 6만 명이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고 보니까, 동로마 황제가 깜짝 놀란 것이다. 자신은 서유럽의 정예 군인들이 올 것을 상상했는데, 오합지졸의 피난민들이 막 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빠진다. 이 군대가 동로마가 잃어버렸던 니케아 성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 군대가 가서 보니까, 빼앗겼었다는 그 성에 동로마의 깃발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까 동로마 황제가 밀사를 보내서, 약탈을 두려워한 니케아 성이 미리 항복하도록 설득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데에는 성공한다. 예루살렘 정복이 가능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수아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다. 그 후 100년 동안 예루살렘은 기독교인이 지배하는 땅이 된다. 이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왕이 된다. 그러나 3차 십자군 전쟁 때 이 땅을 빼앗기고 만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잘못된 전쟁이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다.

(3) 종교개혁 시대 :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1450년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였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든 후 제일 먼저 인쇄한 것이 성경이었다.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는데, 물론 라틴어 성경이었지만, 루터가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다. 교황권이 약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약해졌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많은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헌금을 하는 만큼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 부모도 헌금할 때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선전을 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고 깨달은 루터는 이것을 비판하는 글을 10월 31일에 발표한다. 이 날은 원래 성인들의 날이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그 성인의 날로 만들었는데, 성인의 숫자가 365명을 넘으니까 모자라지 않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즉 만성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나머지 성인들을 다 섬겼다. 그 날에 루터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하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 루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스위스였다. 스위스 사람들은 특별하게 살았는데, 아주 독립심이 강했다. 산골짜기에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니까 용병으로 일했었다. 지금도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나라 아닌가? 2차대전 당시에 전 유럽이 히틀러에게 정복당했을 때에도 중립국으로 남아있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혁을 주도했다. 열정이 있었고 다혈질이어서 개혁을 주도했지만 실력은 좀 부족했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 칼뱅이라는 사람이다.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파리대학 총장의 취임사를 썼다. 그런데 이 취임사를 너무 바르게 써 버렸다. 프랑스 왕이 이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장과 함께 도망치던 칼뱅이 스위스로 와서 파렐을 만나게 되었다. 파렐은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고 싶지만 실력이 없는데, 칼빈, 즉 프랑스로 칼뱅이라 부르는 이 사람의 저서 <기독교강요>를 읽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다. 이렇게 해서 칼뱅은 파렐에게 붙들려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다. 칼뱅 자신은 사실 연구만 했을 뿐이었으므로 파렐의 체의를 처음에는 거부했다. 그러나 파렐이 강권적으로 설득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칼뱅이 이렇게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너무 강하다 해서 의회의 결의로 추방당한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쫓겨나서 개혁을 하지만, 제네바 정부에서 다시 칼뱅을 모시기로 결의한다. 종교개혁을 자기들끼리 해 보려고 하니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뱅을 모시고 모든 것을 맡긴다. 칼뱅이 종교적 이유로 사법살인을 많이 했다는 비판의 주장이 인터넷에 많이 있지만, 사실 제네바의 모든 시정은 시의회가 결정했다. 그리고 칼뱅은 죽을 때까지 제네바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 제네바 의회의 결의로 입국이 금지된 이들이 입국을 강행하거나 처벌로 처형을 당한 것이었다. 칼뱅은 학자였을 뿐 과격한 정치가는 아니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복음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음을 볼 수 있었다.

(4) 부흥운동 시대 :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18, 19세기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통해 미국에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다. 한국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온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2. 이 시대의 문제와 교회의 사명

(1)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칼뱅, 루터 시대와 다른 문제가 우리 시대에 있다. 그것이 다윈의 진화론의 문제다. 경험주의 철학, 이성주의 사고방식, 공신주의의 확산 같은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다. 이 사회의 문제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 개혁하고 공부하고 깊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 과학에 대한 착각이다. 과학이 대단한 것인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과학인 것처럼 알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아무 것도 아니다. 천 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의논해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없다. 모기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다. (웃음) 램턴트 여러분, 현대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두었는지를 믿음으로 발견해야 한다. 또 교육의 문제다. 잘못된 지식, 진화론의 지식이 기반이 되어, 우리 램턴트들에게 사회와 교육이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가장 많이 시키는 이때에 문제가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어야 한다. 경제가 가장 발전했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이 자본주의로 넘어가 버렸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은 돈에 대한 것이었다. 이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많은 이야기가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게 판단의 기준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어려워 정도로,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자본주의가 깔려 버렸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뛰는데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된다.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도 전도도 다 놓치게 된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팝박이 아니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 스포츠, 영화, 여행, 게임, 취미활동, 중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서서히 스며들어왔다.

(2) 그렇다면 21세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적 보수적인 정통 개혁신학을 정립해야 한다. 복음의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서서히 복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결론 : 시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1)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중요한 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지도자가 일어나서 시대를 바꾸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시대를 개혁할 만한 인제가 될 것을 믿는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시대를 바꿀 만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때 스위스 제네바가 했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2) 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나와야 한다. 1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자녀를 잘 가르쳤는지 모른다. 스스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서 아이를 가르쳤다. 굉장히 규모가 있게 가르쳤는데, 심지어 우는 것도 크게 울지 못하도록 가르쳤다. 그 밑에서 영국의 역사를 바꾼 요한 웨슬레가 일어났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큰 교단으로 세워진 감리교의 창시자다. 그 동생 찰스 웨슬레는 찬송작가인데, 그가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13곡이나 수록되어 있다. 이런 자녀들을 키워낸 것이다.

(3) 그리고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파렐처럼, 츠빙글리처럼, 루터나 칼뱅처럼, 목숨을 걸고 성경적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우리 산업인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겠는가? 산업인 중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고 기독교 공인 결정도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다.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을 못 하니, 공의회를 소집해서 해결하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교리를 정립하게 한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다. 우리 램턴트 중에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1차 십자군 원정을 성공시킨 고드프루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루터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루터 혼자서 성경 번역, 종교개혁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3세라는 독일 작센의 선제후를 만나게 된다. 이 사람이 현명한 군주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했으며, 음악과 교양, 예술 활동을 지원했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루터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루터와 다른 팀들을 구성해서 모으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서 보호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이었다.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사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며,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묵상하며 붙잡는 한 주간, 언약을 붙잡는 한 주권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개혁할 복음적인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뿐인 인생,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역사와 교회사에 남을 만큼 소중한 친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